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밥을 쪄주는 열면 김이 먼저 올라온다. 솥가락으로 밥을 떠보면 물을 머금은 쌀알이 서로 기대어 있다. 밥을 인출하는 것이 따뜻한 밥이 남아 있고, 솥가락 끝에는 밥알 하나가 붙어 있다. 우리는 대개 여기서 밥을 생각한다. 쌀을 찌고 물을 맞추어 밥을 지으면 한 끼가 마련된다.

그런데 이 밥은 어디에서 왔을까. 밭양파에서 왔을 때부터 가늘게 올라가야 할까. 논에서 벼가 익어 수확되면 낱알이 익는다. 모를 논에 옮겨 심던 날, 모판에 찌얇을 뿌리던 날까지 돌아가야

할까. 손바닥에 벌쳐 한 톨을 올려놓는 데까지 가면 아홉까.

벌쳐는 작다. 손바닥 위에 놓으면 비슷하게 생긴 낱알 몇 개가 보일 뿐이다. 아직 썩고 없고 익지도 않았고 논도 없다. 농부는 그 작은 씨앗을 살펴서 한 해 농사를 준비한다. 어떤 씨앗을 남길지 고르고 물을 머금게 하며 씨가 나올 때를 기다린다. 논도 모도, 아삭도 아직 없는 때다.

씨앗이 나온 씨앗은 모가 되고, 모는 논으로 옮겨진다. 논에 들어

만들 수는 없다. 농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정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기다린다.

논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벼만 자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물속에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흙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살아간다. 논부령의 풀 사이로 곤충이 지나가고 개구리가 물속으로 뛰어들다. 새가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간다. 농부는 그곳에서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견뎌지, 언제 손을 대고 언제 기다릴지를 살핀

고요한 숨결을 들고 한 끼를 먹는다.

하지만 한 번쯤 그 길을 거꾸로 따라가 볼 수는 있다. 밭에서 쌀로, 쌀에서 벼로, 벼에서 논으로, 논에서 모로, 모에서 벌쳐로 돌아가 보는 것이다. 그러면 밥 한 공기가 지나온 시간이 보이기 시작한다. 농부가 한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이 있다. 흙과 물이 있었고 햇빛과 비와 바람이 있었다. 벼와 함께 살아간 생명들도 있었다.

추석명절에 밥 한 공기를 떠올리며

다. 시간이 지나 벼가 익으면 수확이 시작된다. 콤바인이 논으로 들어와 벼를 베고 낱알을 거둔다. 하지만 벼가 논에서 나왔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벼는 말려지고 보관되며 옮겨지고, 껍질을 벗어 쌀이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밥을 인출로 들어간다.

우리는 그 길을 매번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쌀 한 톨에 여든여덟 번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쌀을 뜻하는 '미(米)' 자를 여든여덟 번 돌리면 다시 나온 말이다.

농부의 손길은 씨앗을 고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모를 살펴보고, 논에 물을 대고, 논부령을 손으로, 벼 사이의 풀을 살펴보고, 병해충을 살펴보고, 익어가는 이삭을 바라본다. 한 해의 농사는 몇 번의 큰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손길들이 이어지고 이어져 한 톨의 쌀에 닿는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쌀 한 톨에 여든여덟 번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쌀을 뜻하는 '미(米)' 자를 여든여덟 번 돌리면 다시 나온 말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연구소 소장, 전 공
· 호남시립 대학교 총장
· 주가관 기독교 연합 공동대표

레 25:31, "그러나 성령이 불리지 아니한 종라의 기복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불리 주기도 할 것이요 회년에 불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령이 불리지 아니한 종라의 기복" 곧 '성 밖의 농촌 주택'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도래하는 다음 회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소유권이 아니라 그 사용권을 사고 팔 수 있고, 회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가 가능하다. 이것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채 성 밖의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열 두 지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레 25:32-33, "32.레위 족속의 성을 곧 그

년 유대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그 지역에 사는 것을 소극적으로 허락할 경우 그것을 '묵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그 대신 유대하는 사람에게 거처할 집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것을 '묵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너는 그를 도와 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말씀이, 유대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그 지역에 사는 것을 허락한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유대하는 사람에게 거처할 집을 제공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기류민이나 동거인처럼'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읍의 향변에 의하면 그는 나그네에게

모든 사람의 주거권

들의 소유의 성읍의 기복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3년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권 기복은 회년에 불려보내지 아니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기복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기복" 곧 '레위 지파의 주택'은 '성령이 불리지 아니한 종라의 기복'처럼 토지와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도래하는 다음 회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소유권이 아니라 그 사용권을 사고 팔 수 있고, 회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가 가능하다. 이것은 레위 지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레 25:35,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여기서 '너는 그를 도와 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것은, 유대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그 지역에 사는 것을 허락한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유대하는 사람에게 거처할 집을 제공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묵다' (하락)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 왜냐하

집을 제공했다. 읍 31:32,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한에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읍처럼 나그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다.

유대하는 빈민에게 거처할 집을 제공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회년 연관 문헌인 '여호와께서 기복하시는 금식' 문헌에서도 등장한다. 사 58:7, "유대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여기에서 유대하는 빈민에게 거처할 집을 제공한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집의 소유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참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집의 사용권을 준다는 의미이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말씀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증을 홀리스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맞아들여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회년 주택법은 요컨대, 나그네들의 주거권, 이스라엘 12지파의 주거권, 레위 지파의 주거권, 국민증의 주거권 등 한 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난 9월 19일(토)부터 10월 4일(일)까지, 일본의 아이치와 나고야에서, 41번째 한 번씩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 주관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종합 스포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20th Asian Games Aichi-Nagoya 2026)이 20번째로 열렸다. 45개국, 43개 종목, 선수 만 5천여 명, 경기 469개, 금메달 469개를 놓고 서로 경쟁했다. 제1회 대회는 1950년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열렸다. 지난번 19회 대회는 중국의 항저우에서 열렸었다. 41개 종목에 선수 792명을 포함한 총 1,082명의 대만민국 선수단이 선전(善戰)했다. 지난 9월 27일에는 야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야구는 5년 연속 금메달이라고 한다.

아시안게임의 뿌리는 1948년으

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도의 구루다스 반드호파다이는 아시아 지역의 스포츠 발전과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 경기 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194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스포츠 연맹 창설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첫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다. 당시 참가한 국가는 11개국, 총목수는 67명이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참가하는 국가 수도 종목 수

도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 선수들도 찾기 시작하며 평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외로 발전해왔다. 1954년 제2회 아시안게임부터는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OCA)가 주관하게 되었다. 아시안게임은 스포츠 행사 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초기 아시안게임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제 교류를 증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스포츠의 발전과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아시아 스포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1980년 제10회 아시안게임에서는 처음으로 북한과 남한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출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연출되었다. 이는 아

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었다.

참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열정, 협력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아시안게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지도 기대된다.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e스포츠 등 새로운 종목의 도입과 첨단 기술의 활용 등으로 대회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경기가 너무 가열되다보니 폭력과 나쁜 언행으로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수들의 건강과 행복과 아시아의 평화



최홍남

·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 예장통합 전남노회 전도부서
· 영문학 석사, 생애학 석사, 12 제자

"아시안게임?"

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아시안 게임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1990년대 이후 아시안 게임은 규모와 경기 종목 수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스포츠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외로 발돋움하였다. 한국은 서울(1986), 부산(2002), 인천(2014) 등 총 세 번의 호스트로서 진행을 하였으며, 많은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다. 특히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창대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236 광주광역시 광안구 우산동 10-1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벌영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102 광주광역시 남구 문정동 17번길 8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새순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102 광주광역시 북구 문정동 17번길 8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소망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102 광주광역시 북구 문정동 17번길 8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월 광 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025 광주광역시 서구 월광동 31번길 10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102 광주광역시 북구 문정동 17번길 8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하 남 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233 광주광역시 광안구 우산동 10-1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양림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102 광주광역시 남구 문정동 17번길 8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거 성 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236 광주광역시 광안구 우산동 10-1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신 창 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227 광주광역시 서구 문정동 17번길 8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기독교한국침례회 엘림침례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025 광주광역시 서구 월광동 31번길 10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임 면 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102 광주광역시 북구 문정동 17번길 8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동명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143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0번길 31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성광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102 광주광역시 남구 문정동 17번길 8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광명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102 광주광역시 북구 문정동 17번길 8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봉황임마누엘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227 광주광역시 서구 문정동 17번길 8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섬김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201 광주광역시 서구 문정동 17번길 8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무등교회 목사: 박종현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 주일오후 3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9:00 6230 광주광역시 서구 문정동 17번길 8 (070-4000-1000) 대표전화: 062-952-1100 FAX: 062-952-1100